



추수 감사절 예배 및 교회 창립 예배

지난 11월 23일 주일은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감사드리고 동시에 본 교회의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중에 본교회의 55년된 역사를 나누며, 또한 제 2의 회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 낭독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난 12년전 본교회 유년/초등부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던 정성욱 목사님(현 덴버 신학교수)께서 방문하셔서 좋은 설교의 말씀으로 또 한편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목사님은 골로새서 3:15-17절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해야할 대상 및 표현방법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희생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조건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성령님이 공동체인 교회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교통하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함으로 가득차야 하며 그러한 마음을 입술로 시인하며 몸으로 섬김으로 “범사에 감사”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참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고 말씀하심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실천의 각오를 다짐케 하셨습니다.

12월호차례

- ▶ 추수 감사절 예배 및 교회 창립 예배
- ▶ 권두언-놀이터가 아파요
- ▶ 당회소식
- ▶ 해외 선교 위원회
- ▶ ECC 건축 위원회 보고서
- ▶ ECC 모금 위원회
- ▶ 노회 소식
- ▶ 웨마의 밤
- ▶ 여선 교회 소식
- ▶ 부부 청년부 소식
- ▶ 청년 1, 2 부 소식
- ▶ 청년 1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 ▶ 중, 고등부 소식
- ▶ 애바라기 주일 학교 소식
- ▶ 대강절
- ▶ ECC 찬양과 기도의 밤
- ▶ 초대 의 글
- ▶ 교우 동행, 알림
- ▶ 새교우 환영반
- ▶ 사순절 묵상집 원고 모집
- ▶ KCB 갤러리



‘놀이터가 아파요.’

지난 주 2살난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교실에서 열심히 뛰노는 모습을 보니 어서 속히 공사가 끝이 나고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 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물어 보았습니다.

“놀이터 좋아하지? 놀이터 어디 갔어?” 이 어린이가 하는말, “놀이터가 아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저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더욱 어서 빨리 건축이 완공되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언제나 놀이터로 뛰어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놀이터는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아이

는 놀이터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정작 저의 눈에는 아파하는 놀이터보다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쳐 왔습니다. 이 아이는 놀이터가 아프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아이의 마음이 아프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공사 기간 우리는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아픔이 끝날 때 멋진 선물을 우리 모두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강절의 축복이 온 식구들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회 소식

김 문소 장로

1. 교회 규칙 개정위원회가 마련한 몇가지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2009년 공동의회에 상정, 의결기로 하였습니다.
2. ECC 건축을 위해 PILF에 추가 용자 40만불을

(총 200만불) 11월 30일 임시 공동의회에 상정, 의결기로 하였습니다.

3. 11월 30일 임시공동의회에서 40만불 추가 용자를 의결, 통과하였습니다.

<선교 위원회 소식>

니카라과 선교지를 위한 바자

김 동숙 집사

11월 2일(주일) 남서1구역 주최로 니카라과 선교지에 보낼 성탄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로 총 965불이 모아졌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부해주신 교우님들과 남서 1구역원을 비롯하여 음식 도움을 주신 많은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선교지에 보낼 성탄기금마련을 위한 바자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선교기금은 니카라과 선교지에 성탄절을 기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ECC 건축위원회 보고서

한 승의 광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ECC 건축 공사가 현재 까지 많은 진전을 보며,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기간에도 계속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Holden St. 쪽 교육관을 위한 작업 들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진전을 본 Harvard St. 쪽 Community Center의 외관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겨울 동안에도 건물 안에서 내부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겨울 동안에도 외부 공사가 가능하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1월 30일 현재까지의 ECC 건축 진행 경과를 간추린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Demolition and Abatement 작업:

- Environmental remediation work regarding heating oil-contaminated soil completed.
- Final report from Green Environmental on oil-contaminated soil remediation submitted to DEP.
- Retaining wall along Harvard Street 100% removed.
- Demolition underway in church basement.

현장 공사 (Site Work)

- Pile installation for shoring 100% complete.
- Rough grading along Harvard Street completed.
- Excavation for Children's Chapel construction continuing.

기초 공사(Foundations)

- Community Center foundation completed.
- Retaining wall foundation footing @ Harvard St. completed.
- Retaining wall foundation wall formwork @ Harvard Street underway.
- Community Center slab on grade completed.
- Foundation footings/walls and elevator pit continuing for the Chapel side addition.
- Foundation underpinning continuing @ Fellowship Hall.

석조 공사 (Masonry)

- CMU at exterior wall along Mr. Tuck's driveway completed (Block work).
- Window fill-in @ basement walls underway.

구조적 철재 (Structural Steel)

- Community Center structural steel work completed.

목공 (Rough Carpentry)

- Metal stud work and exterior sheathing at exterior walls of Community Center continuing.
- Roof framing and sheathing at Community Center continuing.
- Windows for Community Center received and installed.

냉운, 통기 공사 (HVAC)

- Chimney cleaned and inspected and new gas service completed.
- Gas piping to boiler completed with boiler operational.
- Demolition of existing baseboard heat underway in areas to be renovated.

앞으로 될 작업들 (Upcoming Work)

- Excavation for Children's Chapel addition to continue.
- Underpinning & foundation work for Children's Chapel to continue.
- Interior partitions at Community Center.
- Community Center roof installation expected first week of December.
- Rough plumbing/electrical/HVAC @ Community Center

2) ECC Revised Budget: 11월 9일 정기 당회에서 revised된 ECC 총 예산액 \$3.83MM 을 인준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거의 모든 permit (Sidewalk Closing, Electrical, HVAC, Plumbing Permitting Fees, etc.) 비용들이 포함되었고, 또 중요한 Change Order Items들을 포함한 Revised 된 예산으로서 처음 추산되었던 예산액 \$3.65MM 에서 약 5%가 상승된 액수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30일에 열렸던 ECC Committee에서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11월 9일 정기 당회에 제출하여 최종 인준 받은 것입니다.

요즘들어 우리의 성전건축을 행하는 건축자들이 그 어느때 보다 활기차게 공사에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성전건축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신 건축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더욱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4구역과 중서3구역, 그리고 북동구역원들의 정성어린 점심 대접은 추운 날씨에 열심으로 공사에 임하시는 건축자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으며, 그로인해 그들과 우리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주에는 권사회에서 대접을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교우들이 이일에 동참 하심으로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분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 모두의 작고 큰 정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함께하는 건축” 이 되길 기원합니다. 남은 겨울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사 내년 8,9월로



예정되어진 건축완공이 아무 문제없이 순조로이 진행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완공 되어지면 모두 갚아야하는 모자라는 건축 기금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자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시고자 원하시는 성도님들이나 구역원들께 선 모금위원들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금위원: 안성완,김준구,김성현,안태준)

<노회 소식>

Presbytery Day- 10월 25일

보스톤 노회에서는 매년 한번씩 가지는 “노회의 날” 행사를 지난 10월 25일 Needham Presbytery Church에서 가졌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Multicultural Ministry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인종들을 위한 목회 사역에 관한 강연과 토론, 찬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주제 강사로 Rev. David Malone (Worcester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Multicultural Ministry의 경험을 토대로 열정적인 주제 강연을 하셨습니다. 예배에는 저희 교회 1부 찬양대가 참가하여, 한국어와 영어, 스페니쉬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다 함께 ‘아리랑’ 곡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쉐마의 밤

지난 11월 29일(토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격 달로 열리는 쉐마의 밤이 열렸습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쉐마의 밤에 많은 교우님들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간에 열리는 쉐마의 밤이라, 다함께 모여 풍성한 추수감사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칠면조 구이를 장로님들께서 준비해

주셨고, 각 구역에서는 그에 어울리는 추수감사절 Side Dishes들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 어느때 보다 풍성한 만찬이었습니다. 한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만드신 풍성한 음식들을 즐겁게 나누었으며, 추수감사절 전통인 칠면조 구이를 carving하는 시범을 한승희 장로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곧이어 쉼마 찬양단의 인도로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고, 초철 구역 이야기로 중서 3구역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현악연주로 ‘날 사랑하심’이란 찬양을 올렸고, 중서 3구역이 준비한 구역의 모습이 담긴 slideshow도 있었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

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가족과 ECC 건축,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철에 불바람 불어 있고’ 찬송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며 축도의 시간으로 쉼마의 밤을 마쳤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지난 2개월 동안 마리아 여선교회는 특별한 행사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평안히 지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의 일을 구상하며 미래의 교회 행사 및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1. 우선 12월 14일(일)에 ECC건축을 위한 기금모금 음식 바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김밥, 밀반찬 및 과일 등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김밥 및 밀반찬은 마리아 여선교회원들이 손수 만들어 “어머니의 손맛”을 맛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풍성하고 싱싱한 과일들은 뉴욕에서 특별 주문 배달하여 교우님들에게 “고향맛”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에 판매하며, 이익금을 ECC건축 현금으로 드리고자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12월 21일(일) 오전 10시 30분에는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가집니다. 2008년도의 결산 및 행사보고 등을 하며 2009년도 봉사를 해 주실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는 한해의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만 45세 이상의 모든 여선교회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우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소식

1. 에스더 여선교회는 지난 11월 23일 창립 55주년 및 추수감사 예배후 2부 다과를 준비하였습니다. 김지수 사모님께서 준비해주신 풍성한 빵에 과일, 쿠키등을 더하고, 과일바구니와 꽃장식등으로 풍요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2. 11월 30일 쉼마의 밤 저녁 만찬을 준비하였으며, 12월 13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건축을 위

한 찬양과 기도의 밤’ 행사후 나눌 다과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3. 에스더 여선교회는 12월 21일(일) 오후 1시 30분에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가집니다. 올해 2008년도의 결산 및 행사보고가 있고, 신임 회장단도 선출할 계획입니다. 여선교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 2부 소식

안 은신 집사

우리 부부청년부는 2008년 11월 2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후에 08/09년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헌신예배때 현금 특송은 부부 모두 참여하고자 나이 어린 아이들을 아빠들이 아기띠로 안고 신나는 노래와 춤, 그리고 랩까지 넣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청년부는 나이도 젊지만 마음과 몸도

젊은 부부들의 모임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와 각자의 모양으로, 우리 부부청년부는 매년 색다른 모습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청년부의 헌신예배와 총회를 앞두고 우리들은 부부청년부의 토요일 기도팀으로 시작하여 기도하는 부부청년부가 되고 또 기도로 이끄는 08/09의 새 임원단이

선출되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다른 해와는 달리, 남편보다 부인이 먼저 후보로 추천되었고 임원진 이름을 쓸 때도 부인의 이름을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항상 남편을 Support하며 부청을 섬기던 부인들이 올해에는 남편들의 Support으로 부청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08/09 임원진으로는 회장: 안은신/황동준, 부회장: 한혜성/김상기, 총무: 임윤아/류승렬과 각 부 부장들입니다.

총회 후, 11월에는 기도하는 부부청년부가 되기에 해 수요 성경공부에서 “기도하는 부부청년부” 라는 Workshop을 소기범 목사님의 인도아래 가졌습니다. 또 Thanksgiving Day에는 10가정 정도가 모여 한 해

를 감사하며 서로가 잘하는 음식을 하나씩 준비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임원단이 준비하는 맛있는 돈가스 카레로 시작하는 월례회를 갖고, 크리스마스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모임에는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많은 친선 게임들이 있고 작은 Elephant 선물교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매주 토요일 아침 기도 모임, 주일 모임, 한달에 2번 있는 수요 성경공부, 매달 첫 주에 있는 월례회, 등 많은 부청의 모임과 행사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되고 부부들이 하나의 부부청년부를 이루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부부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소식

저희 청년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청년 1,2부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준비한 식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항상 2% 부족했던 두 부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나아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정말 값지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더욱 가깝고 친밀한 저희 청년부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늘 따뜻한 시선과 끊임없는 기도로 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봉사해주실 신임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회장: 류정용, 부회장: 강모나, 총무: 이봉렬

청년 1부 소식

가을 수련회는 10월 24-26일에 샤론수양관에서 이요한 목사님의 인도로 이루어졌구요. 주제는 Becoming THE Christian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 청년 1부에서는 또래 모임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다른 theme을 가지고 주일 예배 후에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9월은 친교, 10월은 기도, 그리고 11월은 봉사의 theme을 가졌었는데요. 특히 11월에는 많은 청년 1부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답니다.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속한 부부또래는 86년/87년 또래와 함께, Somerville에 있는 Boys and Girls Club에 가서 Generations Incorporated라는 자선 단체와 Elliot Elementary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book folder와 indoor recess book을 만드는 일을 도왔구요.

81년/82년/83년/84년/85년 또래는 Thanksgiving 당일에 Harvard Ave를 따라가며 (교회에서 Beacon St까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88년/89년/90년 또래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Boston downtown에 있는 Homeless들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을 수련회 주제 말씀중에 하나였던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는 마음에 봉사 활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봉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큰 일을 한 것은 아

하지만, 청년 모두가 이번 일을 통해 감사히 순종하는 모습을 배웠기를 소원합니다..

11월 말에는 회장선거가 있었고.. 회장에는 이해민 자매가, 그리고 부회장에는 이유리 자매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1부와 불우이웃을 위한 음식 바자회>

12/7일(주일) 1부와 2부 예배후 청년 1부가 주최하는 바자가 있습니다. 이 바자는 청년 1부 활동을

위한 기금과 불우이웃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하여 열립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1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Becoming “the” Christian

이 유리 교수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수련회라는 단어가 특별한 감흥 없이 조금 무더질 즈음, Boston에서의 첫 수련회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로 하여금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순장이라는 직분으로, 리더그룹의 한 일원으로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또한 그 시간이 함께 할 모든 청년들에게 결코 헛되이 보내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샤론수양관에 도착했을 때, 늦은 시각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많은 청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불러모아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런 기독교인 중 하나가 되기보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지금 생각해보아도 가슴 저리게, 한편으로는 은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두 번의 뜨거웠던 저녁 기도회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형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던 자

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높게 뻗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던 형제, 목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중보기도 해주던 자매...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각자의 방법과 다양한 모습들로 기도했지만,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4복음서 성경통독.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어느 정도의 모험심을 발휘하여 상당한 시간 성경읽기에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했으며, 궁금한 점은 순장에게 물어보며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한바탕 웃을 수 있었던 레크리에이션 시간과 마지막 모두가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암송한 시간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모두가 두 손 들고 울부짖으며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중 고등부 소식

김 성연 집사

최근 Ransom Youth Group에서는 두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10월 19일에는 중고등부 부장집사로 계신 김성현/이은주 집사 댁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위한 식사 겸 교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중고등부 교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22일에는 ARISE Youth Ministry (보스톤에 있는 한인교회 중고등부 모임) 에서 주최하는 Thanksgiving 맞이 “Kimchee” Bowl (flag football: 태클이 없는 미식축구 토너먼트) 에 13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8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중등부 팀과 고등부 팀으로 두 팀을 구성해 아침 7시부터 모여서 Gordon College에 가서 추운 날씨 (체감온도 화씨10도) 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게임에 임했습니다. 모두 16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중등부팀과 고등부팀 모두 2승 1패로 예선을 통과해 6팀이 겨루는 결선에 나갔습니다. 중등부팀은 아쉽게도 결선 첫 경기에서 탈락했지만, 고등부팀은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Janice Cha의 결정적인 수훈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참여한 학생과 선생

님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운동하고 응원하는 아주 귀중한 fellowship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 고등부는 11월부터 격주간으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성경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시간이 짧아 심도있는 성경공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토요 성경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꼭 참석할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Youth Group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해바라기 주일 학교 소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풍요한 가을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해바라기 주일학교는 가을축제를 열고, 본교회 어린이는 물론 인근 어린이들까지 초대하였습니다. 7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학부모회 (회장; 배한원집사)에서 준비한 맛있는 파스타를 먹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한 게임, 공작, 팀훈련, 말씀공부 그리고 신나는 피나타 터뜨리기로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관 건축을 놓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기도해왔던 해바라기 주일학교는 11월부터는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CC 건축 찬양제 후부터 주일학교에서는 교육관 건축 헌금상자를 어린이들

에게 전달하고 한 마음으로 교육관을 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대강절



대강절(Advent)은 ‘옴’, ‘도착’ 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 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며, 한때 이 말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기도 했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네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1. 시기

교회 절기로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가리킨다. 대림절이라고도 불리는 대강절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다.

한편 서로마 교회에서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대강 주일을 성 안드레의 축일(St. Andrew's Day, 11월 27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강 주일이 시작되는 날짜는 11월 30일보다 빠르지 않고 12월 3일보다 늦지 않다. 이러한

계산법에 의하면 성탄절전 대강절에는 4번의 주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지켜지던 대강절이 동일한 계산 방식에 의해 기념되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이후의 일로, 동로마 교회가 서로마 교회의 방식에 따라 대강절 기간을 계산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오늘날 교회들도 서로마 교회의 대강절 계산법에 따라 대강절 시기를 정하고 있다.

2. 유래

성탄에 앞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로 지켜지는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성령 오심을 기념하기 위한 성령 대강절과는 구별되는 절기이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대강절은 초대 교회시대에 이미 기념되기 시작했으나 성탄 절기에 대한 이견으로 대강 절기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 성탄절이 동, 서로마 교회의 통일된 절기로 승인된 4세기 후반 이후에야 대강절 역시 성탄절 전 4주간의 고정된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강절이 12세기 들어오면서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서, 즉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로 보는 관점이 보편화되어진 것이다. 즉 이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현재는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시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재림주로서 오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대강절에 회개와 새 결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출처: <http://kr.blog.yahoo.com/paekwk/1215.html> >

<ECC 찬양과 기도의 밤 초대의 글>

한 목소리로 (one voice)

안 태준 강로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게 문제 투성이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요? 누구의 실책인가요? 어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럴줄 알았다면 새로운 시작을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된 현실이 원망스럽네요. 지출을 줄여야겠어요. 좋은 시절이

다시 오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어디를 가나 대화의 첫머리는, 현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곤 합니다. 믿지않는 자들은 매일매일 정부의 발표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나

고 목매어 부르짖곤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는 우리의 삶 앞에 예고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혹자에겐 평생을 통틀어 한 두번, 어느 누구에게는 살면서 셀 수도 없이. 지금 우리의 현실도 피해갈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예상 공사비용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무수한 계획들은 다 소용이 없어진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one way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절대적인 힘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그 시대와 때를 정할 자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때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3년전 계획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중단된 적도 있으나 주님께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케 하시사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분명 이 건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렇습니다. 그 분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뒤돌아 보게 하거나, 뒤돌아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함께 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 우리에게 영광된 기회를 허락하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한 목소리로 (one voice) 찬양합시다.

“그가 여호와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자리 위에 제사장 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스가랴 6:13)

“멀리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슥 6:15)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건축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밤을 12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맡으신 부서마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시부터 준비된 저녁식사를 나누며 친교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찬양과 기쁨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

- 임숙현 집사 부친 소천 (10월 중)
- 전신애 집사 부친 소천 (11월 중)
- 본교회 창립멤버중 한분이신 故김영호 교우 소천 (11월 25일)
- 김진홍/김경태 교우 가정 득남 (수연, David)
- 박병관/오선영 교우가정 득남 (재훈, Edward)

<상록기도회 임원진 선출>

- 회장: 신영각 집사
- 부회장: 장현숙 권사
- 총무: 이숙재 권사

알림

11월 30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기 예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깊게 명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09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가정당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성탄주일 유아세례 희망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연례보고를 각 부서와 구역에서는 12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12월 13일(토) ECC 건축 찬양과 기도의 밤
- 12월 24일(수) 성탄축하예배:
(촛불예배와 더불어 본교회 1,2부 연합찬양대가 헨델의 메시아 곡중의 일부를 현악과 관악이 함께하는 음악예배로 드립니다)
- 12월 31일(수) 송구영신 예배

새 교우 환영반



이영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새교우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한번씩은 하셔야 하는 아주 귀한 모임입니다.

첫째 주는 간단한 (3분 정도)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리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라는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교육자 명단:

노재현 교우- 8년전에 보스톤에 오셨고 씨애틀로 몇년 이주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 1부예배 교인위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신충우/문미진 교우- 두 분 모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셨고 믿음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주)한샘에서 근무하시고 2살된 딸이 있습니다.

이지훈 교우- 뉴욕에서 1년전에 보스톤으로 이주 하셨고 경제학 석사 과정에 계시고 성가대에서 봉사 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아내와 두아이들은 잠시 한국 방문중 이십니다.

김주석/ 권윤경 교우- 보스톤 총영사님으로 몇 달 전 보스톤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두 분 다 모태 신앙인 이시고 89년 뉴욕 근무때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며 거듭난 생활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청년 담당 집사님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장성연/ 박양신 교우- 6월에 결혼을 하셨고 두분 다 보스톤 대학 박사과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4년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때 새벽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찾았고 마음 좋은 남편을 만나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가정입니다

김문소 장로님 가정에 저희 새교우들을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받았고, 가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계숙 권사님의 홈메이드 및 반찬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번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 원고 모집

2009년 2월 25일(재의 수요일)을 기하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005년도부터 매년 발간해 왔던 ‘사순절 묵상집’을 2009년도에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사순절의 묵상을 위한 글들을 기다립니다. 묵상집에 글을 내시기 원하시는 분은 kmyoonkcb@hotmail.com으로 1월 4일(주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해바라기 주일 학교 가을 축제



• 청년 1부 봉사 활동



• 웨마의 밤



• 중 고등부 Kimchi-Bowl



• Presbytery Day



• 청년 1, 2부 Thanksgiving Dinner



• ECC 건축 현장



• ECC 찬양과 기도의 밤